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 3,13-17)



성녀 헬레나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몸소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이다. 이 축일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전승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게 되었고, 황제는 이를 기념하고자 335년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다. 그 뒤로 십자가 경배는 널리 전파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축일이 9월 14일로 고정되었다.

작가 치마 다 코넬리아노 | 1495년, 캔버스에 오일 40,2x32,2cm. 워싱턴 D.C.국립미술관, 미국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 공동체가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바라보며 느끼고 있습니까?(요한 3,15 참조)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 3,16-17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아드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를 따지지 않고, 먼저 다가오며 우리를 감싸안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3장 15-16절]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회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하느님 안에서 공존하기 】 교황님 9월 기도지향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문을 읽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논의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행사 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등)



내 삶 속에서

- ① 일상 생활 속에서 도움 받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 묵상해보기
② 하루 한 번,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기

✝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하느님께서 온 세계에 계시며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회생시키면서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어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중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